

특별기획

부안쌀 증동·아프리카 판로개척

청정 해역의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 등이 풍부해 밥맛 좋기로 유명한 명품 부안 쌀 천년의 숨씨가 증동·아프리카지역 판로개척에 나섰다.

부안군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지난 3월 2023 세계잡곡대회 유치활동으로 증동·아프리카지역 대사관 등을 방문한 가운데 미질이 우수한 부안 쌀을 홍보하고 수출가능성을 확인한 뒤 현지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로개척은 지난해 기성여건이 좋아 사상 유래 없는 대풍을 이뤘지만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안 쌀 판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오만·케냐·가나 등 3개 공관에 천년의 숨씨가 홍보 쌀을 택배 발송했으며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부안 쌀을 증정 홍보키로 하고 해외 바이어를 통해 부안 쌀 납품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16명 인명구조 자격증 따

부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인명구조요원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제1기 교육을 통해 13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했으며 올해 제2기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실시해 16명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총 29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제2기 교육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해 지난달 6일부터 부안국립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진행했으며 응급처치법, 인명구조술 등 총 5회에 걸쳐 강도 높은 교육 후 평가를 거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군에서 실시한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부안군 수상 안전을 위해 의미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 인명구조요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부안군 심문식 해양수산과장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보건소, 학교보건교사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김제시 교육지원청과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내 지역 학교와 정신건강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 초·중·고 59개교 보건교사 60명을 대상으로 4월 5일 김제중앙초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아이들의 뇌는 매우 민감하여 뇌분비 물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므로 감정조절, 기분조절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김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보건교사의 역할 및 정신건강 통합지원체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문제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김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유일환)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학교 생활 부적응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생기 시장이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와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생기 정읍시장 창조경제 대상

행정혁신 부문서... 소통·현장행정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공로

김생기 시장이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이하 창조경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와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창조경제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상이다.

김생기 시장은 "민선 5기부터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섬김, 현장행정·창의정신을 기반으로 한 광복환보한 행정혁신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시장은 민선 5, 6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시민과의 밀착형 소통

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과 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선도적인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에 나서 인근 지자체인 고창·부안과의 협업행정을 통해 상생발전의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광역 공동화장장인 새남권 추모공원 건립으로, 이 사업은 인근 지자체 간 성공적인 협업행정 추진과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성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정부 3.0 협업행정 우수사례, 예산 효율화·지역특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들 지자체와 전국 최초로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 생활권

구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나서 3년(2013~2015) 연속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연계협력사업 및 선도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함께 3대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R&D 사업 기반구축에 주력했고 이와 연계한 첨단과 혁신업단지를 조성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결실을 거뒀다.

또 오는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암 전문병원과 의료전문연구소 그리고 의료시설과 지식산업이 들어서는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향후 의료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지평선아카데미, 멋진 인생위한 4월 강연 '풍성'

인생 100세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걸맞게 끊임 없이 배워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10년전 첫 강연을 시작한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2016년 4월에는 "싱그러운이 가득한 멋진 인생"이라는 테마로 배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삶에 활력을 채워 줄 내용으로 진행한다.

4월 첫 번째 강연인 제460회(7일)에는 머니 트레이너로 널리 알려진 머니매니저 박종기 대표를 초청하여 "제테크 부자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를 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성공적인 자산관리 방법 및 은퇴 자금 마련법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강연을, 제461회(14일)에는 "재미있는 세상이야기"라는 주제로 재미와 방송인 겸 행복다지아너를 초청 유머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직장을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 노하우등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진행하며, 봄을 알리는 벚꽃길이 유명한 백구면 주민들이 아카데미를 체험하는 제462회(21일)에는 한국서비스교육원 김춘에 원장을 초청하여

"힐링을 위한 소통 전략"이라는 주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소통을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는다.

4월 마지막 강연인 28일 제463회에는 최준영 거리의 인문학자로부터 "인문학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통해 삶에 대해 희망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농기계사고 주의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농기계 사고의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하고, 발생시간별로는 귀가 시간대인 오후 6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운전 시 전복이나 추락, 농기계로 신체가 끼이거나 압착 당하는 사고, 도로 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 등이다.

이 중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조작 미숙,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농기계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교통안전공단의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4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이 약 20%로 일반차량 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지원과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 사고사례와 농작업 안전 기본지침을 담

은 안전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 할 예정이다.

또한 순회수리교육 일정으로 마을 방문 시 도로나 농로 운행 중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아랑표지판을 부착해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 시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점검과 정비를 습관화하고, 일맞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기계 탑승 시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농기계 운전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봄철 나들이 운행이 잦은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농촌지역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를 따르고 농로에서는 서행하는 등 안전의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회원 20여 명은 미리 준비한 각종 양념과 재료들로 손수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20여 명에게 전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안군지회 봉사활동

불우이웃에 밀반찬 전달

부안군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밀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회제의 단체인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부안군지회(지회장 최재례)로 생김차와 장조림, 오징어채조림 등 각종 밀반찬을 만들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 6일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부안군지회 회원 20여 명은 미리 준비한 각종 양념과 재료들로 손수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20여 명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로 전달했다.

더욱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부안군지회는 매년 분기별로 밀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독거노인 효도관광 보내 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실천에 모범을 보이는 단체로 유명하다.

최재례 지회장은 "생활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밀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함께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확대·진행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드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box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